

피서가 무슨 말인지도 몰랐던 시절

물 만난 고기처럼 책속에 묻혀 살던 내 젊은날의 행복

윤청광

동국출판사 대표

1950년대에 고등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대부분 참담한 학창시절을 경험했을 것이다.

나도 물론 예외가 아니었다. 3개월에 한번씩 내야하는 학교 수업료를 제 때에 내지 못해서 중간고사 시험 중에 서무과 선생님의 의해 뒷덜미를 끌려 교실밖으로 쫓겨난 일이 두세번쯤 되었으니 다른 사정이야 오죽했을 것인가.

그러니, 마음놓고 책을 사볼 여유는 더더구나 없었다. 그 무렵 우리는 새학년이 되기도 전에 1년 선배를 찾아다니며 현교과서를 적당한 가격에 인수받기 위한 사전 교섭을 하고 다닐 형편이었으니, 새교과서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야말로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백방으로 노력한 보람도 없이, 1년 선배로부터 현교과서를 고스란히 인수받지 못하면 별 수 없이 나는 현책방을 돌아다니며 단 얼마라도 더 싼값으로 현교과서를 사들여야 했는데, 내가 현책방 순례를 시작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였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다닐 적에는 읽고 싶은 책을 사볼 수가 없어 서점 점두에 서서 눈치독서로 책을 읽다가 당시 서점주인의 동생이 배풀어준 은혜를 입어 마음놓고 책을 빌려다보는 혜택을 얻었다.

1959년 2월, 나는 서울로 올라와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넓고 넓은 서울 천지에 사돈의 팔촌도 없는 처지였다. 염치 체면 불구하고, 당시 한국일보 기자였던 최영철 선배의 현저동 하숙방에 기식을 하다가 용기를 내어 찾아가던 곳이 중학교 은사이신 극작가 차범석 선생님 댁이었다.

당시 덕성여고에서 교편을 잡고 계셨던 차범석 선생님 댁은 신당동 중앙시장 안에 자리잡은 국민주택이었는데 선생님 댁 2층 다다미방에 짐을 풀고 보니, 아랫층 선생님의 방에는 그야말로 책이 무진장으로 꽂혀 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 물을 만난 고기처럼 선생님의 방에 있는 책들을 닦치는대로 읽어내기 시작했다. 차범석 선생님은 극작가이셨기 때문에 선생님의 서가에는 그동안 내가 구경할 수도 없었던 수많은 문학서적은 물론, 특히 희곡작품이 어찌나 많은지 나는 뿌듯한 마음으로 셰익스피어에서부터 유진 오닐에 이르는 갖가지 희곡작품들을 섭렵하다시피

했다.

선풍기도 없던 시절, 찌는듯이 무더운 비좁은 방이었지만, 런닝셔츠 바람으로 책을 읽었던 그 시절의 독서력은 지금 생각해도 거의 광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 시절 나에게 일본어 책을 읽을 수 있는 실력만 있었다면 아마도 더 많은 좋은 책을 읽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일본책을 볼 수 없는 게 한스러울 뿐이었다.

이때부터 나는 현책방 순례를 시작했다. 짜장면 값만 주머니에 있으면 나는 끼니를 굶어가며 현책방을 찾아다녔다. 시구문 근처의 현책방에서부터 서우역 뒤 중립동, 삼선교, 해화동, 청계천, 인사동은 말할 것도 없고, 어느 구석에 현책방이 있다는 소리만 들으면 나는 걸어서 현책방을 찾아가곤 하였다.

대학신문사에서 학생기자로 고학을 하는 처지였지만 대여섯개의 필명으로 원고를 써서 그 원고료를 손에 쥐기만 하면 나는 현책을 사모으는 즐거움에 배고픈 줄도 몰랐고, 다리 아픈 줄도 몰랐다.

‘심지어 나는 여름방학 때 대학신문사의 일로 부산에도 가고, 대구에도 가고, 대전에도 취재차 가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푹푹찌는 무더위 속에서도 나는 으레히 그 지방의 현책방 순례를 빼놓지 않았다.

대구 현책방에 갔을 때, 나는 거기서 말로만 듣고 있던 홍명희의 소설 「임격정」을 아주 헐값에 사는 행운을 만날 수 있었고, 삼선교 현책방 앞에서 리어커꾼으로부터 희귀한 잡지 「우리문학」의 창간호도 구할 수 있었다. 「현대문학」 창간호에서부터 김기림의 「시론」을 비롯한 희귀본들을 단 몇십원을 주고 살 수 있었던 것은 1961년부터 63년에 이르는 무더운 여름이었다.

지금 내가 소장하고 있는 귀한 책들은 바로 그 참담했던 가난의 시절에 점심을 굶어가며 사들인 현책방들이다. 1965년 내가 문화방송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지적에 지천으로 깔려 있던 그 많은 골동품에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현책방만을 열심히 들락거리며 현책만을 사들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옛전적을 사들인 것은 아니었고, 투자를 위해 전문지식을 갖추고 현책을 산 것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읽기 위해서 현책을

샀고, 글쓰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현책을 샀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전적은 별로 소장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그 무더운 여름, 단 몇백원의 돈을 현책 사는 데, 쓰기 위해서 비지땀을 흘리며 현책방을 순례하던 기억을 소중한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다.

낮에 돌아다니며 신나게 사들인 현책을 밤늦도록 야근야근 읽어가는 재미란, 참으로 뭐라고 형언키 어려운 것이었다. 특히 단 몇원, 몇십원으로 좋은 책을 샀을 때, 그것은 어쩌면 소중한 보물을 길에서 남모르게 주워본 것과는 같은 짜릿함과 쾌감을 맛보게도 했으니, 그 즐거움을 감히 어디다 비길 것인가!

나는 아직도 현책방 순례의 버릇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 십여년 전부터 은평구 갈현동 입구에 있는 두곳의 현책방을 가끔씩 들르곤 하면서 저 가난했던 1960년대의 그 여름을 회상하곤 한다. 생활여유가 많아진

최근에 이르러서 오히려 책사랑의 열기가 많이도 식었음을 깨달으며 자탄을 하게 된다. 긴긴 여름, 점심을 굶어가며 만날 수 있었던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불을 꺼달라는 셋방주인의 욕설을 들어가며 만났던 레마르크의 「개선문」, 그리고 마가렛 밋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 허먼 멜빈의 「백경」.

어느 작품 하나도 잊을 수가 없다. 땀에 절은 졸졸이 작업복에 끼니를 걸러가며 구했던 그 많은 책들이 내 참담했던 젊은 날을 아름답게 장식해주었고, 분에 넘치는 큰 꿈들을 내 가슴에 안겨주었으니, 피서가 무슨 말인지도 몰랐던 1960년대의 나의 여름은 그야말로 책속에 묻혀 지낸 신나는 여름이었다.

